

섬 전문가 50명 상주, 섬 보존 가치 높이고 발전 이끈다

목포 한국섬진흥원 무슨 일 하나

부처별 나눠진 섬 관련 업무 통합

섬 개발·보존 기준 마련 급선무

주민 소득증대 컨설팅·교육도

전남도 2012년부터 10년 노력 결실

목포가 예상대로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 계획과 보전·개발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섬 주민 소득증대 등을 위한 컨설팅·교육을 맡게 될 한국섬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존속, 보존을 전제로 한 점진적인 개발, 편의 및 숙박시설 등 신속한 관광지 개발 등 섬에 대해 '개발'과 '보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섬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방치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도 높다. 또 섬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발족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348개의 섬을 연구할 한국섬진흥원 역할 기대=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섬이 많다. 다만 섬에 대한 기준이 정부부처마다 각각 다르다. 해양수산부는 유인도 472개, 무인도 2876개 등 3348개의 섬이 있다고 집계하고, 행정안전부는 섬의 개수를 4201개로 적고 있다. 전남은 이 가운데 유인도 381개 등 2615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

섬이 지역의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과거 무인도는 아예 거론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유인도는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상하수도부터 시작, 도로, 선착장을 놓고 연륙·연도교로 물의 편리함을 섬에 전파시키는 것이 우선 목표였다. 도서개발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이들 사업으로 물과 비교적 값싸거나 자원이 풍부한 섬의 편의성은 크게 높아졌다.

과거 섬을 찾는 이들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선박으로 1시간 이상 거리의 섬은 이동 당시의 날씨, 비용 등의 문제가 뒤따르면서 섬주민이거나 친척, 그 섬에 대해 알고 있는 몇몇 전문가 그룹, 일부 여행객 등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연륙·연도교가 놓이고

선박기술이 향상되면서 외부로부터 폐쇄돼 있었던 섬의 문이 열렸다. 거기에 맞춰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제가 정착됐으며, 인터넷과 SNS의 발전은 섬 여행의 대중화가 열리면서 섬을 찾는 이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섬의 보존 가치를 찾고, 발전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이 발족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통합 관리 나설 듯-섬 전문인력 구성이 첫 키=전남도의 한국섬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섬진흥원 설립으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0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74억 원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은 원장 아래 경영지원실, 기획연구실, 사업운영실 등 3실에 50여명의 전문가들이 진흥원에 소속될 예정이다. 이들은 섬 개발, 문화, 역사전통, 연계, 자원, 융복합 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며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 지원·진흥, 섬 주민 소득증대 등을 위한 컨설팅·교육 등을 맡게 된다. 4월 법인 설립, 5월 원장 선출, 7월 인력 채용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출범한다. 한국섬진흥원은 현재 섬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리고,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등 각 정부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섬 관련 업무의 통합에 나설 전망이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지난 2019년 창립한 한국섬재단 등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조만간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2012년부터 10년째 한국섬진흥원 필요성 제기=전남도는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영토수호·자원생태·환경·역사·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섬 고위 특성 개발·지원, 연구·진흥·보존 등을 맡을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꾸준히 건의했다.

국내 유일의 섬 연구기관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2012년 12월 이를 제안하자 전남도가 2016년 1월 행정안전부에 이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정부에 8월 8일을 세계 최초로 섬의 날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해 2019년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 행사를 목포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국섬진흥원 설립 근거인 섬발전촉진법 개정을 서삼석, 김원익 등 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섬진흥원이 들어설 목포 삼학도.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광주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지역 주요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협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민주당, 군 공항 이전 등 현안 해결·국비 확보 협력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

대선공약 발굴 실무협의팀 구성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지역구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시는 지역 주요현안으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국가 고차기장 연구소 구축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마련 ▲GGM 후속사업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조성(호남RE300)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국가사업 전환 ▲여자프로배구 신규 구단 광주 연

고 유치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광역철도 건설(광주-나주, 광주-화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광주의료원 설립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 ▲광주 그린 스타트업 타운(GST) 조성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광주설립 등 총 16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병원중심 세포치료산업 혁신기반 구축 ▲공공기관 통합 탄소중립 에너지관리 플랫폼 구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광주송정역 복합환승 중심선상 역사 증축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5·18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 확충 ▲발달장애인 융복합

지원센터 설치 등 총 21건, 4538억원의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전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GGM 자동차 공장의 시험생산 돌입,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착수, 경제자유구역청 개칭 등으로 광주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사업 확보에 지속해서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최근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 운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등도 호소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 발굴을 위한 광주시, 국회의원 간 실무 협의팀을 구성하고 광주-전남 브랜드 비전 마련을 위한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쇄신 레이스' 될까

광주·전남 대선의원 모임 출마 논의 서삼석 의원 대표성 갖고 출마 할 듯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경선이 본격화 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의 당선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당로서는 재보선 참패 이후 지도부를 새로 꾸리며 쇄신에 돌입할지도 관건이다.

15일 서 의원은 국회에서 출마기자 회견을 하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전남 '대선 의원 모임'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논의했다. 이 모임에는 송갑석(서구갑)·서삼석·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신정훈

(나주화순) 의원 등 재선 이상 국회의원이 참석, 최고위원 선출 등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 호남 내부의 경쟁보다는 지역의 정지력을 모으기 위해 이날 대선 의원 모임을 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지난 경선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에 따라 경선을 포기했던 전남지역 서삼석 의원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에서 광주지역 양향자(서구을) 의원이 선출된 만큼, 이번에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에 나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서 의원이 대표성을 갖고 출마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으로서도 이번 최고위원 경선이 중요한 계기

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경선이 각각 3파전과 2파전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선거에 새로운 얼굴이 나서 야당 당 쇄신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초선 그룹에서 최고위에 진입하자는 주장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논리와 맞닿아 있다.

현재 여성 의원 중에는 재선 백혜련 의원, 자치분권 부문에선 서울 성북구청장 출신인 김영배 의원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재선 강훈식·김병욱 의원, 초선 김남국·이소영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흥행 여부다. 후보군이 컷오프(예비경선) 기준인 9명을 넘어서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비경선 없이 곧바로 본경선으로 들어간다면 흥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